

**이오플로우-메나리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9월 1일 유럽 정식 런칭**

- ▶ 메나리니 브랜드 GlucoMen Day 'PUMP' 및 'Narsha'로 오는 9월 1일 유럽 출시
- ▶ 당뇨 인구가 많은 유럽 시장 안착으로 사용자 저변 확대 기대

**[2022-08-11]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는 메나리니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및 모바일 앱 나르샤를 9월 1일 유럽에 정식 런칭한다고 밝혔다.**

이오패치는 이오플로우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다. 지난 2019년 세계 50대 제약사인 메나리니와 5년간 1,500억 원 규모의 이오패치 유럽 17개 국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오패치는 지난해 5월 유럽 CE 인증을 받고 유럽 수출길을 열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메나리니의 공식 런칭이 지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나리니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 10개 국가에 제품 등록을 마쳤고 인슐린 주입기 입찰에 참여해 성과를 내는 등 제품 런칭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마침내 런칭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GlucoMen Day PUMP(글루코멘 데이 펌프)'로 유럽 지역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오플로우의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와 이오패치 통합 당뇨 관리 시스템은 당뇨인의 혈당관리 수준 개선에 앞장서는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솔루션이다. 기존 인슐린 펌프가 긴 주입선으로 인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약이 많았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이오패치는 작고 가벼워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최대 3.5일(84시간)까지 인슐린 주입이 가능해 2021년 국내 출시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나르샤는 이오패치의 인슐린 주입을 조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에 이오패치 사용자가 상시 지참해야 했던 별도 컨트롤러(ADM)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했다. 또한 나르샤는 특정 자가혈당측정기 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하도록 해 인슐린 투여 전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당뇨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한국에 이어 유럽에 정식 런칭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이오패치와 나르샤 앱의 유럽 출시는 이오플로우가 글로벌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니즈가 컸던 만큼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나리니의 알렉산드로 보르게시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은 "유럽에서 그동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에 대한 니즈가 컸던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판매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10개 국가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유럽 17개 국가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자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메나리니가 판매하는 글루코멘 데이 펌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나리니의 당뇨케어 브랜드 글루코멘 데이 홈페이지(<https://glucomen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자료]



[▲사진 캡션] 메나리니 글루코멘 데이 '펌프' 및 모바일 앱 '나르샤' 출시 안내 배너